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3세 아동의 행동억제*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박성연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Prof.: Park, Seong-Yeon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arly emotionality and mothering and fathering antecedents of inhibition of children at age 3 years in a sample of 100 children (51 boys; 49 girls). In order to assess child's behavioral inhibition and mothering, the behaviors of each child-mother dyad was videotaped in a structured lab situation. Data on Fathering behavior were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2X2 ANOV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and Fisher's Z test were conducted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Only small portion of the variance in subsequent inhibition could be explained by early emotionality (i.e. negative, positive, and the interaction of both emotionality). 2) High negativity coupled with low positivity in infancy predicted high inhibition especially for girls. 3) In general, sensitive mothering and appropriateness of mothers' response were related to child's low inhibition, while parental intrusiveness and negative affect increased child's inhibition. 4) Mothering appeared more influential in the case of children who showed low positivity during infancy.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in infancy and studying parental behavior to predict child's inhibition were discussed.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내는 행동은 새로운 상황에 호기심을 갖고 다가가는 접근행동

(approach behavior)과 경계심을 보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거나 움츠러드는 행동억제(inhibited behavior)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행동억제는

* 본 연구는 1996년도 학진 자유공모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인 부적응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Rubin, 1993; Rubin & Asendorpf, 1993; Chen, Rubin, & Sun, 1992)에 힘입어 지난 십여년 동안 꾸준히 구미학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이같은 행동억제에 대한 관심은 Harvard 대학의 Kagan을 중심(Kagan, 1989; Kagan, Reznick, Clarke, Snidman, & Garcia-Coll, 1984; Kagan, Reznick, & Snidman, 1988; Mullen, Snidman, & Kagan, 1993))으로 비롯되었는데, 이들은 중단적인 연구를 통해 행동억제의 기원을 생리적, 기질적인 측면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외에도 Fox 등(Fox, Calkins, & Bell, 1994; Calkins, Fox, & Marshall, 1996)은 뇌의 생리체계의 특징과 영아기의 정서적 개인차 및 영아기 이후에 나타나는 접근-회피 행동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연구자들은 대부분 행동억제의 기원으로 영아기 때의 부정적인 정서가 높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행동억제 성향은 시간이 경과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이라고 보고 있다(Asendorpf & Aken, 1994; Broberg, 1993; Engfer, 1993).

그러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수 있는 기질과 행동억제 간의 상관관계가 극단집단을 제외하고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Kagan, 1989; Kagan, Snidman, Arcus, 1993; Kerr, Lambert, Stattin, & Klackenber-Larsson, 1994)에서 그리 높지 않은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몇몇 연구들(Arcus, Gardner & Anderson, 1992; Engfer, 1993)에서 행동억제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영아기의 생리적인 특징이나 정서적인 특성과 유아기나 아동기 때의 행동억제성향간의 관계가 어떤 조건에서 약화되는지에 대한 행동억제 성향의 불안정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정성에 관련된 변인으로 가족내 스트레스, IQ, 아동의 생활사건 및 부모의 양육행동이 보고되고 있으나(Asendorpf, 1994; Engfer, 1993; Belsky, Fish, & Isabella, 1991; Park, Belsky, Putnum, & Crnic, 1997; Washington, Minde, & Goldberg, 1986), 그 중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변인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다.

그러나 어떤 양육행동이 아동의 억제행동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양육행동의 정의나 측정방법, 또는 측정시기에 따라 연구들마다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과 측정으로 보다 많은 연구 결과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기질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Belsky, 1984; Rubin, Stewart, & Chen, 1995), 같은 양육행동이라 할지라도 행동억제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시사되고 있어(Arcus et al, 1992; Park et al, 1997; Wachs & Gandour, 1983; Kochanska, 1997)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행동억제 성향이 높은 아동들은 또래간의 사회적 행동이나 학교에서의 적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서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Chen et al., 1992; Rubin & Asendorpf, 1993; Rubin, LeMare, & Lollis, 1990)과는 달리, 중국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Chen, Rubin & Sun, 1992; Chen, Rubin & Li, 1995)에 의하면 아동의 행동억제는 오히려 사회적인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행동억제가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나뉠수 있는 행동특성임이 시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줍음이 사회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현심·박성연, 1992; 도현심, 1995)가 한 두편 있을 뿐 행동억제의 선행요인이라고 할수 있는 영아기의 기질이나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세가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1살 이전의 아기의 정서성과 3세 아동의 억제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억제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이 영아기 정서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유기체적 특수성 가설(Organismic Specificity Hypothesis)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행동억제의 기원으로서의 영아기 정서성

아동의 행동억제는 1세 이전에는 행동적으로 표현되기보다 부적응이나 까다로움 등의 정서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Arcus et al, 1992)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생후 4개월에 영아가 새로운것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성을 기초로 높은 예민성(high reactivity)을 나타내는 영아와 낮은 예민성(low reactivity)을 나타내는 영아의 두 유형으로 개념화한 Kagan은 새로운것에 대한 영아의 까다로움은 그후 유아나 아동이 새로운 상황에서 나타내는 행동억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Kagan, 1989). 이외에도 Fox, Calkins과 Bell(1994), Engfer(1993) 등의 연구에서 영아의 부정적인 기분이나 까다로움 등 부정적인 정서가 높은 영아나 또는 운동성이나 활동성이 높은 영아는 두려움이 많고, 후에 낯선 상황에 대한 행동억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동억제는 부정적인 정서적 기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특히 부정적인 정서적 특성들은 긍정적인 정서에 비해 연령이 증가해도 상당히 지속적인 특성이어서 정서성 연구의 주된 초점이 되어 왔다(Belsky, Fish, & Isabella, 1991). 그러나 최근에는 정서성을 단일차원의 양극적인 개념으로 보는 대신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두차원 개념이 대두되고 있어(Belsky, Hsieh, & Cmic, 1996), 긍정적인 정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실상 Rothbart(1988)는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접근하는 아기는 잘 웃는 성향을 지니고 있고, 주저하며 접근하는 아기는 울음이나 두려움이 많은 아기였다고 보고함으로써 두차원의 정서성이 유용함을 시사하였다. Calkins와 Fox(1992)도 사회적인 상황에서 두려움을 적게 나타내는 14개월된 유아는 긍정적인 정서가 높았던 것을 발견하였으며, Fox(1994)는 보다 정교한 측정방법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가 높았던 아기는 후에 행동억제를 많이 나타냈으며, 긍정적인 정서가 높았던 아기는 나중에 접근행동이 높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Park 등(1997)은 부정적 정서성과 긍정적 정서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고하여, 아동의 행동억제는 부정적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긍정적인 정서가 높을 때는 그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두차원의 정서성이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러한 연구들은 행동억제 연구에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째 연구목적인 행동억제의 기원으로서의 기질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 기질의 구성 요소 중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정서성(Belsky, Hsieh, & Cmic, 1996)과 행동억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3세 때의 행동억제가 부정적인 정서로만 예측되기보다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두가지에 의해 더 예측이 잘되며, 동시에 두차원의 정서가 상호작용하여 부정적 정서가 높고 긍정적인 정서가 낮을 때 행동억제가 가장 높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2. 양육행동이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

행동억제의 기원으로 정서성을 중심으로 기질을 파악하고 있는 연구들(예: Kagan, 1989)에서 나타난 상관관계들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극단집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편이어서, 행동억제가 정서성 외에 기타 다른 변인들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행동억제 성향의 비연속성에 관련된 몇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최근에는 연구자들이 특히 양육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영아의 정서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Belsky, et al. 1991; Mathney, 1986; Mills & Rubin, 1993; Washington et al., 1986)는 것이 제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크게 두가지의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Engfer(1993)는 행동억제의 지속성과 변화에 관련된 양육행동 요인을 규명하였는데, 사회적인 행동억제의 형태인 수줍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아동을 다루는데

있어 강제적인 힘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의 정서상태나 요구에 민감할 경우 아동의 행동억제성향은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Rubin, LeMare와 Lollis(1990)은 민감성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되어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행동억제성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Rubin, Stewart와 Chen(1995)은 과보호나 지나친 통제 가 행동억제나 위축된 행동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민감성이 행동억제를 감소시킨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부모가 아동의 요구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아동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오히려 아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약화시켜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즉 Arcus 등(1992)은 1세 이전에 지극히 반응성(reactivity)이 높은 아기가 울 때 어머니가 즉각적인 반응(민감성의 지표로 봄)을 보이면 14개월 때 행동억제를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반면에 아기의 울음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면 행동억제 성향의 발달을 저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Park 등(1997)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민감성(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아이에게 맞추는 행동으로 정의됨)이 높은 경우 남아의 행동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Arcus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민감성이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견해에 대한 의문을 풀기위해 본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행동억제에 미치는 양육행동을 규명하는 것이다.

3. 유기체적 특수성 가설

부모의 양육행동이 행동억제성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에 따라 다른 것은 민감성 등 양육행동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상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겠으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가정은 Wachs의 Organismic Specificity가설(Wachs & Gandour, 1983)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 Wachs의

가설에서는 개개 아동이 유사한 환경에 의해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질적으로 다른 아동에게는 같은 양육행동이라도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Arcus 등(1992)과 Park 등(1997)의 연구에서는 특히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성이 낮은 아동보다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정서성이 두 차원이란다는 입장에서 부정적 정서성 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라도 양육행동의 영향이 다른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의 세번째 목적은 정서성 두차원에 따라 행동억제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효과가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6개월±1개월 범위에 속하는 유아 100명(남아: 51명, 여아: 49명)과 그 부모들로서 총 10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주제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므로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있는 가정과 연구대상 아동이 출생한 이래 연구에 참여한 시집에 이르기까지 직장을 가지지 않고 아동을 직접 양육한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였다. 전체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은 35.9개월이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각각 34세와 31세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대학졸업 이상이었으며 가정의 월수입은 평균 211만원으로 나타났다.

2. 측정방법

1) 실험실에서의 행동억제 측정

아동의 행동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Asendorpf(1983), Kochanska(1991), Kagan 등(1984)이 사용한 방법을 기초로, 낯선 상황(실험실), 낯선 물건, 낯선 사람과 처음 마주쳤을 때 아동이 나타내는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구조화된 실험상황을 구성하였다. 실험상황은 4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졌는데, 에피소드 1에서는 실험실에 처음 들어오면서 나타내는 낯선 사람과 장소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에피소드 2에서는 낯선 장소와 물건에 대한 아동의 반응, 에피소드 3에서는 낯선사람과의 대화과정에서의 아동의 반응, 그리고 에피소드 4에서는 낯선 사람과의 놀이 상황에서 아동의 반응을 측정하고자 설계되었다.

각 에피소드에서의 아동의 반응은 비디오로 촬영한후 Asendorpf, Kochanska, kagan 등, 그리고 Park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평정방법 및 체계들을 참고하여 개발한 평정체계에 따라 평정되었다(표 1 참조). 네개의 각 에피소드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반응들은 얼굴표정, 신체의 경직정도, 목소리의 긴장정도, 접근-회피행동을 중심으로 1점에서 5점 척도로 평정하여 행동억제를 점수화하였다(점수가 많을수록 행동억제를 많이 보임). 표 1에서 보듯이 4개의 각 에피소드는 아동에게 요구되는 질문이나 행동내용에 따라 평정단위를 나누어 모두 11개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의 또 다른 지표로 아동이 처음으로 말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아동이 자발적으로 처음 장난감을 만지기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하여 합산한 점수도 산출하였다.

위와 같은 평정과 시간 측정은 모든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비디오 촬영이 끝난후 피험자에 대해 사전지식이 없는(실험에 참여하지 않았고 촬영에도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 두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100개의 비디오 테이프중 임의로 선정된 20개의 비디오 테이프로 두관찰자의 평정점수가 거의 일치할 때까지 비디오 테이프를 반복 관찰하는 훈련과정을 거친후 각자 독립적으로 아동의 행동억제 정도를 점수화하였다. Standard Kappa로 산출한 관찰자간의 신뢰도는 .75였고 Within-One Kappa는 .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각 아동마다 산출된 11개의 행동억제 평정 점수에 대해 요인분석과 내적신뢰도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8개의 평정점수(표 1에서 평정단위 4, 6, 8 제외)를 합산한 평균을 행동억제 점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행동억제 점수와 절대시간을 합산한 점수간의 상관관계는 .73, $p<.0001$ 로 나타나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영아기의 정서성 척도

아동의 영아기 정서성은 Carey와 McDevitt(1978)의 영아기 기질 질문지 개정판(RITQ) 95개 문항중 접근회피성(9문항), 적응성(3문항), 정서성(10문항) 및 예민성(9문항)의 영역에서 총 31개 문항을 선택하여 번역한 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아동과 어

<표 1> 각 에피소드에 따른 행동억제 점수의 평정기준

에피소드	평정 기준	평정 단위
에피소드 1 앞부분 (들어와서 자리에 앉기 까지)	신체 경직 정도와 접근-회피 반응을 각각 평정	1. 신체 경직 정도 점수 2. 접근-회피 반응 점수
에피소드 1 뒷부분 (자리에 앉아서 실험방법의 설명을 듣는 과정)	신체 경직 정도와 접근-회피 반응을 각각 평정	3. 신체 경직 정도 점수 4. 접근-회피 반응 점수
에피소드 2 (낯선 상황, 낯선 물건)	신체 경직 정도와 접근-회피 반응을 종합하여 평정	5. 첫 번째 30초까지의 점수 6. 두 번째 30초까지의 점수 7. 마지막 1분동안의 점수
에피소드 3 (낯선 사람과의 대화)	신체 경직 정도와 접근-회피 반응을 종합하여 평정	8. 첫번째 질문부터 세 번째 질문까지의 점수 9. 네번째 질문부터 마지막 질문까지의 점수
에피소드 4 (낯선 물건,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	신체 경직 정도와 접근-회피 반응을 종합하여 평정	10. 장난감을 가져오는 장면까지의 점수 11. 실험자와의 상호작용 장면의 점수

머니가 본 연구를 위해 실험실에 왔을 때, 생후 6-12개월에 아동이 보인 정서적 특성에 대해 과거 회상식으로 응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를 낮추는 예민성 문항 한 문항을 제외한 30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5였다.

정서성 척도 30개 문항은 4점의 리커트 척도로서 긍정적인 정서성을 측정하는 15개 문항과 부정적인 정서성을 묻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긍정적인 정서성은 접근성, 적응성, 긍정적 정서 표현이 높고 예민성이 낮은 것을 말하고, 부정적인 정서성은 접근 회피성, 예민성 및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높고 적응성이 낮은 것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정서성이 높다. 본연구에서 긍정적인 정서성 15개 문항과 부정적인 정서성 15개 문항의 α 값은 각각 모두 .78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내용으로는 아동이 각 에피소드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과잉보호, 지시·통제의 양, 지시·통제의 적절성, 거부·적대태도 등 5가지 행동을 측정하였다. 각 양육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점수기준은 아래의 표 2와 같으며, 지시·통제의 적절성과 민감성을 제외한 세가지 양육행동은 Farran, Kasari, Cornfort와 Jay(1986)를 참고로 에피소드 1, 2, 3, 4와 자유놀이 상황에 걸쳐 5초간격의 시간표집법으로 그 빈도를

기록하였다. 지시·통제의 적절성은 어머니의 지시·통제 행동이 그 상황에서 '적절한 지시'인지 '부적절한 지시'인지를 분류하여 그 비율로 산출하였다. 한편 민감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어머니의 반응을 요구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Smith와 Pederson(1988)의 방법에 근거하였다. 즉 모든 실험과정이 끝난후에 어머니로 하여금 질문지를 완성하게 하여 아동의 요구와 질문지 과제에 동시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는 갈등상황을 구성하여 어머니의 반응의 적절성을 관찰, 기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기록은 행동억제 점수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4명의 대학원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비디오를 반복 재생함으로써 충분한 훈련과정을 거친후 Irwin과 Bushnell 관찰자간 신뢰도가 .85이상에 도달하였을 때 각자 개별적인 기록을 하도록 하였다.

4) 아버지의 양육행동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거부·적대, 과잉보호행동, 민감성 및 지시·통제 정도의 4가지 양육행동에 대한 4점 척도, 57개 문항의 질문지를 작성한 후, 요인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32개의 문항으로 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아버지용 양육행동 질문지는 실험실에 온 어머니를 통하여 배부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각 양육행동 차원의 신뢰도는

<표 2> 어머니의 다섯가지 양육행동에 대한 정의 및 평가기준

에피소드	평정 기준	평정 단위
지시·통제의 양	아동의 행동을 지시, 명령, 금지하는 행동	· 행동, 목소리, 제스춰, 얼굴표정, 말의 내용 등을 고려. · 5초 단위의 절대 빈도치
지시·통제의 적절성	지시·통제행동의 명료성, 지시의 타이밍, 상황적 적절성, 간섭 여부	·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분류한후 빈도기록 · 지시·통제의 양에 대한 적절한 행동의 비율 산출
거부 적대	부정적인 말, 비난, 그에 상응하는 분위기 및 행동	· 행동, 목소리, 제스춰, 표정, 말의 내용을 고려 · 5초 단위의 절대 빈도치
과잉 보호	실제 연령보다 어리게 취급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수용하는 정도	· 행동, 목소리, 제스춰, 표정, 말의 내용을 고려 · 5초 단위의 절대 빈도치
민감성	아동의 요구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 구조화된 상황에서 적절, 보통, 과도한 반응, 관찰되지 않음으로 나누고, 5초 단위로 빈도기록 · 관찰된 총 장면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의 비율을 산출

모두 $\alpha = .79$ 이상(거부·적대(7문항): .83, 과잉보호(10문항): .85, 민감성(9문항): .80, 지시·통제(6문항): .79)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36개월 된 남·여 아동 및 어머니쌍을 대상으로 한 두차례(각 10쌍씩)의 예비실험과 100쌍을 대상으로한 본 실험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실험은 1995년 12월과 1996년 4월에 걸쳐 대학의 아동행동 실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실험 설계를 다소 수정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은 1996년 8월 중순부터 1996년 12월 초까지 약 3개월 반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비디오 촬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집은 대상아동의 연령 제한상 1996년 7월 20일부터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동사무소, 유아교육기관 및 기타기관의 협조를 얻은 후 개별가정과 접촉하여 연구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한 한 대상아동의 연령이 36개월이 되었을 때 실험을 하도록 일정을 약속하였다. 실험실 방문날자와 시간을 약속했던 어머니들이 최종적으로 실제 실험에 참여한 비율은 약 72%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실험실에 들어오는 장면부터 4개의 에피소드 장면에서 아동의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반응을 관찰하고, 어머니에게 간단한 설명 및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양육행동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어머니의 긴장을 완화시킨 후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과정을 측정하였다. 그 후 실험자가 실험실에 들어가 모든 연구가 끝났다고 말한 후 영아기 정서성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게 하고 실험실을 나왔으며, 질문에 응답하는 동안 어머니가 아동의 요구에 보이는 반응을 관찰하였다.

실험은 대부분의 경우 30분 정도에 끝났으나 개인차가 있었고 실험의 전 과정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되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질문지는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에게 전달하여 응답하게 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자 전원에게는 실험이 끝난 후 소정의 연구참여비를 제공하였다.

4. 자료분석

관찰자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여 점수화한 행동억제점수와 양육행동점수,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질문지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Pearson 상관계수, 2×2 ANOVA,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계수간의 차이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Fisher's Z 검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아래에서는 연구문제들을 중심으로 어렸을 적의 정서적인 특성과 3세 아동의 행동억제 간의 관계 및 부모의 양육행동이 행동억제성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든 분석은 전체 아동 및 남·여 아동 각각에 대해 실시하였다.

1. 영아기의 정서적 특성과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영아기의 정서적 특성과 3세 때의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함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남·여 아동 각각을 분석하였을 때는, 예상과는 달리 영아기의 정서성으로 36개월 때의 아동의 행동억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을 지지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즉 전체 아동, 남아, 여아 모두 긍정적 정서성(각각 $r = -.12$; $-.15$; $-.04$)이나 부정적 정서성(각각 $r = .10$; $.07$; $.10$)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 연구(Park et al., 1997)에서의 집단 분류기준에 따라 영아기 때의 긍정적인 정서점수와 부정적인 정서점수 각각을 중앙치¹⁾를 중심으로 두

1) 긍정적 정서성(TP), 부정적 정서성(TN) 각각의 점수 범위 15점 ~ 60점중, 전체집단, 남아, 여아 집단의 중앙치는 TP의 경우, 각각 40, 41, 37점이었고, TN의 경우는 각각 35.5, 34, 37 이었음.

집단으로 나누고 36개월의 행동억제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2(긍정적 정서 두 집단)×2(부정적 정서 두 집단) ANOVA분석을 한 결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체집단의 경우와 남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 긍정적 정서성의 효과가 경계선 수준에서 나타나[각각 $F(1,96) = 3.31, P = 0.07$; $F(1,47) = 3.9, p = .052$].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긍정적인 정서성이 높을수록 행동억제 성향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네 집단중에서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이 모두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행동억제(각각 $M = 3.01$; $M = 3.06$)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표 3, 4 참조).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부정적 정서점수의 주효과나 긍정적 정서점수와 부정적 정서 점수간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여아의 경우는 36개월에서의 행동억제에 대해 영아기 정서성중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정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45) = 6.48, p = .014$). 즉 표 5에서 보듯이, 부정적인 정서 점수가 높고 긍정적인 정서점수가 낮을 때 행동억제가 가장 높아($M = 2.98$) Park 등의 연구(1997)와 일치된

〈표 3〉 영아기 정서성 두차원의 상하에 따른 3세아의 행동억제 점수평균

		긍정적 정서성		
		상(n)	하(n)	합(n)
부정적 정서성	상(n)	257(17)	281(33)	273(50)
	하(n)	259(40)	301(10)	268(50)
	합(n)	259(57)	286(43)	

〈표 4〉 영아기 정서성 두차원의 상하에 따른 3세 남아의 행동억제 점수평균

		긍정적 정서성		
		상(n)	하(n)	합(n)
부정적 정서성	상(n)	249(10)	276(17)	266(27)
	하(n)	244(18)	306(6)	260(24)
	합(n)	246(28)	284(23)	

〈표 5〉 영아기 정서성 두차원의 상하에 따른 3세 여아의 행동억제 점수평균

		긍정적 정서성		
		상(n)	하(n)	합(n)
부정적 정서성	상(n)	206(4)	298(18)	281(22)
	하(n)	289(19)	241(8)	275(27)
	합(n)	275(23)	280(26)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양육행동이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

영아기 때의 정서성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3세 아동의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련의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각 회귀식에서 부정적 정서점수와, 긍정적 정서점수, 두 정서성 점수의 상호작용 순으로 먼저 투입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각각의 양육행동 변인을 투입한 후 R^2 의 변화량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서성의 세가지 예측 변인들이 전체아동, 남아, 그리고 여아의 행동억제를 설명하는 변량정도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미약해서 각각 15%, 4%, 1%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표 6에서 보듯이 정서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체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관찰된 어머니의 행동중 3세아의 행동억제와 관련이 있는 행동은 지시·통제의 양과 질, 그리고 어머니의 민감한 행동정도였다. 즉 어머니가 아동에게 지시나 통제를 많이 할 수록, 그리고 통제나 지시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아동은 행동억제 성향을 많이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민감성이 낮은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은 높은 행동억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고한 양육행동 변인들은 그는 변인도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들 5개중 유의한 3개의 변인들을 동시에 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행동억제에 대한 어머니의 세가지 양육행동 변인들의 설명력은 정서성이 미치는 영향력($R^2 = .015$)을

〈표 6〉 정서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행동이 3세아의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력 (전체 n=100)

양육행동		ΔR^2	F	ΔR^2	β
어머니 행동	MCB3	.05	5.20*	.25*	
	MCB4	.08	8.6***	-.29***	
	MNB	-	-	.09	
	MOB	-	-	.04	
	MSB	.06	6.26*	-.21*	
아버지 행동	FC	-	-	.03	
	FN	.02	1.3	.17	
	FO	.01	.80	-.12	
	FS	.01	.86	-.12	

MCB3: 지시·통제양; MCB4: 지시·통제의 적절성; MNB: 적대·거부; MOB: 과보호; MSB: 민감성; FC: 지시·통제의 정도; FN: 적대·거부; FO: 과잉보호; FS: 민감성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정서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행동이 3세 남아의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력 (남아 n=51)

양육행동		ΔR^2	F	ΔR^2	β
어머니 행동	MCB3	.17	9.98**	.42**	
	MCB4	.07	3.66*	-.29*	
	MNB	.01	.55	.11	
	MOB	-	.40	.06	
	MSB	.02	.68	-.14	
아버지 행동	FC	-	.33	-.06	
	FN	-	.29	-.01	
	FO	.02	.66	-.16	
	FS	-	.29	-.03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정서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행동이 3세 여아의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력 (여아 n=49)

양육행동		ΔR^2	F	ΔR^2	β
어머니 행동	MCB3	-	.19	.06	
	MCB4	.11	5.0*	-.33*	
	MNB	-	-	-	
	MOB	-	-	-	
	MSB	.06	1.15	-.25	
아버지 행동	FC	.01	.25	.09	
	FN	.10	4.5*	.33*	
	FO	.01	.27	-.09	
	FS	-	.69	-.19	

* p < .05 ** p < .01 *** p < .001

제외한 상태에서 11%였다(F(3,93)=3.88, p<.001).

그러나 표 7과 표 8에서 나타나듯이 남아와 여아를 각각 분석하였을 때 부모의 영향력은 남아와 여아에게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지시·통제의 적절성만이 아동의 행동억제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었다. 한편, 남아의 경우는 이외에도 지시·통제의 양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어머니가 적절하지 못한 지시를 많이 할 수록 아동은 행동억제 성향을 많이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아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거부적인 태도가 영향있는 변인으로 밝혀져 아버지가 거부적일 수록 행동억제를 많이 나타내었다.

전체 대상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의 분석에서 9가지 양육행동 변인들중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들을 모아 남아와 여아의 행동억제 각각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아의 경우는 정서성 변인들의 영향력($R^2=.04$)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들 중 두가지 변인들, 즉 어머니의 지시·통제의 양과 적절성이 행동억제를 17% 설명하였으며(F(2, 45)=5.1, p<.01), 여아의 행동억제는 초기정서성 변인들의 영향력($R^2=.01$)을 제외하고 어

머니의 지시·통제의 적절성이 11%(F(1,44)=5.0, P<.05), 아버지의 거부적 태도가 10%(F(1,44)=4.5, p<.05)를 설명하였다.

3. 양육행동이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영아기 때의 정서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 발달의 Organismic Specificity 가설의 검증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인 정서가 낮은 아동보다 높은 아동

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는 Arcus 등(1992)과 Park 등(1997)의 결과에 기초하여, 행동억제에 미치는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아동의 정서성에 따라 다를것으로 가정하고 긍정적 정서성 상·하 집단과 부정적 정서성 상·하 집단 각각에 대해 양육행동과 억제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9에서 보듯이, 전체 대상 아동과 남아의 경우, 긍정적 정서가 낮은 아동들이 긍정적 정서가 높은 아동들보다 대부분 부모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었다. 한편, 부정적 정서가 높은 집단의 아동들은 낮은 집단의 아동들보다 행동억제 발달에 부모의 영

향을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었으나 Fisher's Z 검증에 의하면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즉 어머니의 지시·통제가 빈번하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 경우 아동의 행동억제가 높아지며, 이것은 특히 어렸을 적의 긍정적 정서가 낮은 경우에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함수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는 백인 남아만을 대상으로한 선행연구(Park et al, 1997)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남·여아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선행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고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본연구의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초기 정서성과 후기 행동억제

앞서 지적하였듯이 서구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생의 초기의 기질적인 특성이 후기에 나타나는 행동억제와 어느정도의 상관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부정적인 정서성으로 아동의 행동억제를 예측할 수 있다는 Kagan 등(1988)의 연구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상호작용으로 아동의 억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Park 등(1997)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부정적 정서성의 주효과나 두가지 정서성의 상호작용효과 대신 오히려 긍정적 정서성이 남아나 전체 표본에서 경계선적인 주효과(각각 $p=.052$, $p=.07$)를 나타내 초기의 긍정적인 정서가 3세 때의 행동억제와 어느정도의 관련성이 있었다. 즉, 긍정적인 정서가 높을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성의 높고 낮음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행동억제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가 모두 낮은 집단이 가장 행동억제가 낮았다는 Park 등의 연구와는 달리,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

〈표 9〉 영아기 정서성 상하 집단에 따른 양육행동과 행동억제간의 상관관계

양육행동	H pos	L pos	Z	H neg	L neg	Z
전체집단(n)	(57)	(43)		(50)	(50)	
MCB3	.10	.37*	2.16*	.32*	.20	.62
MCB4	-.23	-.35*	.72	-.35*	-.24	.58
MNB	.07	.10		.24	-.24	
MOB	-.12	.14		.14	-.06	
MSB	-.08	-.37*	1.44*	-.28	-.14	
남아집단(n)	(28)	(23)		(27)	(24)	
MCB3	.12	.72***	2.65**	.48*	.37	.41
MCB4	-.17	-.42*	.90	-.24	-.34	
MNB	-.14	.45*	2.10*	.31	-.22	
MOB	.15	.13		-.07	.20	
MSB	-.18	-.15		.02	-.33	
여아집단(n)	(23)	(26)		(22)	(27)	
MCB3	.02	.19		.01	.23	
MCB4	-.36	-.31		-.42*	-.21	.78
MNB	.07	-.03		-.06	.38	
MOB	-.03	.05		-.03	.11	
MSB	-.11	-.37		-.27	-.19	

* $p<.10$ ** $p<.05$ *** $p<.01$ **** $p<.001$

H pos : 긍정적 정서가 높은 집단

L pos : 긍정적 정서가 낮은 집단

H neg : 부정적 정서가 높은 집단

L neg : 부정적 정서가 낮은 집단

◆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유의한 변인이 거의 없어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서가 모두 낮은 집단의 아동이 가장 높은 행동억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만 나타나 부정적인 정서가 높더라도 긍정적인 정서가 높으면 행동억제가 낮고, 긍정적인 정서가 낮으면 행동억제가 높았다. 여아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부정적인 정서가 높더라도 긍정적인 정서가 완충효과(Buffering Effect)를 나타내 긍정적인 정서가 높으면 부정적인 정서와 억제행동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반면, 긍정적인 정서가 낮으면 부정적인 정서의 영향이 크다는 Park 등(199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남아와 여아간의 차이는 정서성과 수줍음과의 발달적인 경로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한 Engfer(1993)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성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연구는 Engfer를 제외하고는 없고, Park 등은 백인 남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해 본 연구와 Park 등의 연구결과와의 차이가 성 자체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문화에 따른 차이인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한편, 이같이 다른 결과들은 정서성을 측정할 방법상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Engfer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성 측정척도는 다소 다르지만 그 측정방법에서 모두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자료라는 점이다. 반면에 Park 등은 실험실 상황에서 영아가 나타내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점수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서성과 행동억제간의 관계에 대해 현재로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보다 많은 실험적 연구와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양육행동이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

행동억제는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므로 한 문화의 가치관에 따라 부모는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억제를 저지하기도 하고 조장하기도 한다(Rubin, Stewart & Chen, 1995).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동이 타고난 정서적 특징은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어떠한 양육행동이 행동억제를 조장하고 또는 감소시키는데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달라 연구의 쟁점이 되고 있다. 한 예로 Engfer(1993)는 민감한 양육행동이 행동억제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한 반면에, Arcus 등(1992)과 Park 등(1997)은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지 않고 요구적이며, 비반응적일 경우 행동억제는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지시, 통제가 많을수록 행동억제가 높으며 지시 통제가 적절하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할수록 행동억제가 낮아져 Engfer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와같은 차이는 민감성이나 통제의 정의에 따른 차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Park 등의 연구에서 개념화된 부모의 개입(intrusion)이 본연구의 지시·통제의 양과 거의 같은 개념이며, 본 연구에서의 민감성이나 지시·통제의 적절성이 Park등의 민감성이나 애정과 개념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개입 또는 거부적 양육행동이 행동억제를 감소시키고, 애정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이 행동억제를 증가시킨다는 Park 등의 연구결과와는 일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측정방법상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즉 Engfer는 질문지로 양육행동을 측정하였으며, Park 등은 생후 2년과 3년에 걸친 네차례의 가정관찰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험실 상황에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할 본 연구와는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검증된 바는 없지만 Rubin 등(1995)이 주장하였듯이 부모의 민감한 양육행동이 부모자녀간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애착감정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아동의 대처 능력을 높히게 된다고 추론 할 수 있다. 이같은 추론은 민감한 양육행동 → 애착의 질 → 행동억제의 감소 라는 매개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통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아의 행동억제 성향에 있어 어머니의 영향력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Park 등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아 여아 모두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 대조를 보

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는 두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방법론적인 차이로서 아버지 어머니의 일반적인 양육행동을 가정관찰을 통해 분석한 Park 등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동을 실험실에서 관찰한 반면, 아버지는 실험실에 오기가 힘들어 질문지로 대신한 데 기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 포함되지는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자기보고식 양육행동은 관찰로 측정된 양육행동보다 관찰된 아동의 행동억제와의 관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기보고식 자료가 신뢰성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경우 실제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적어 아동의 행동억제 발달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은 아버지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실험실에서 관찰함으로써 확실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종단적인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3세 때의 행동억제와 부모의 양육행동을 동시측정하고, 3세까지의 양육행동이나 3세 때의 양육행동이 같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양육행동이 행동억제 성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과약하였다는 데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억제가 양육행동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행동억제를 보이는 아동의 부모는 부모의 기질자체 또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더 통제적이고 지시적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편, 여아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거부적인 태도가 여아의 행동억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아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의 거부적인 태도가 남아의 행동억제를 감소시킨다는 Park 등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같은 결과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기쉬운 여아의 경우는 특히 아버지의 거부적인 태도가 더욱 억제된 행동을 증가시키게 하는 한편, 남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거부·적대적인 태도가 오히려 아동에게 일종의 공격적인 성향을 가져오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가지 행동 유형인(Kagan, 1997) 행동억제(inhibition)와 함께 접근행동(uninhibition/

approach)을 세분하여 연구하고, 종단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영아의 기질에 따라 행동억제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달라지는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행동억제 발달에 있어 부모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만을 고려하였으나 Arcus 등(1992)과 Park 등(1997)은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적 성향을 많이 지녔을 수록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특성에 따라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달리 나타나고 있어 Wachs의 유기체론적 특수성 가설(1983)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정서성의 높고 낮음에 따른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긍정적인 정서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영아기 때 긍정적인 정서성이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3세 아동의 행동억제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따라서 행동억제와 관련된 양육행동은 모든 아동에게 같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기질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양육행동과 행동억제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성이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보고한 영아기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은 3세 때 관찰된 아동의 행동억제와 대체로 미약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가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 정서에 의해 완충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은 행동억제와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관련은 아동의 초기 정서성에 따라 그 영향력 정도가 달랐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행동억제 연구의 시작에 불과하나, 행동억제에 미치는 부정적, 긍정적 정서성과 양육행동의 영향을 규명하고 행동억제의 발달적인 경로에서 문화적인 차이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축 행동과 접근 행동의 조합으로 행동억제를 개념화하였으나 위축행동과 접근

행동을 따로 측정할 경우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주제에 대한 반복 연구는 물론, 보다 강력한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행동억제와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나아가 양육행동이 행동억제 성향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도현심(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 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7, 2, 33-45.
- 박성연·도현심(1992). 한국아동의 수줍음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 1, 325-338.
- Arcus, D., Gardner, S., & Anderson, C.(1992). Infant reactivity, maternal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behavioral profiles. Paper presented in a symposium on Temperament and Environment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Infant Studies, Miami.
- Asendorpf, J. B.(1993). Beyond temperament: A two-factorial coping model of the development of inhibition during childhood.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pp.265-290), Hillsdale, NJ : Erlbaum.
- Asendorpf, J. B.(1994). The malleability of behavioral inhibition: A study of individual developmental fun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12-919.
- Asendorpf, J. B. & van Aken, M. A. G.(1994). Traits and relationship status: Stranger versus peer group inhibition and test intelligent versus peer group competence as early predictors of later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 1786-1798.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Hsieh, K., & Crnic, K.(1996). Infant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One dimension or two? *Developmental psychology*, 32, 289-298.
- Belsky, J., Fish, M., & Isabella, R.(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ity: Family antecedents and attachment con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27-431.
- Broberg, A. G.(1993). Inhibition and children's experiences of out-of-home care.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pp.151-176). Hillsdale, NJ : Erlbaum.
- Calkins, S. D., & Fox, N. A.(1992). The relations among infant temperament, secur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al inhibition at twenty-four months. *Child Development*, 63, 1456-1472.
- Calkins, S. D., Fox, N. A., & Marshall, T. R.(1996).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antecedents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523-540.
- Carey, W. B., & McDevitt, S. C.(1978). "Revis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Journal of Pediatrics*, 61, 735-739.
- Chen, X., Rubin, K. H., & Li, Z.(1995). Social functioning and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1, 531-539.
- Chen, X., Rubin, K. H., & Sun, Y.(1992). Social repu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 A cross-cultural study. *Child Development*, 62, 1336-1343.
- Engfer, A.(199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hyness in boys and girls: A 6-year longitudinal study.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pp.49-80). Hillsdale, NJ : Erlbaum.
- Faran, D., Kasari, C., Comfort, M., & Jay, S.(1986). *Parent/Caregiver Involvement Scal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Fox, N. A.(1994). Dynamic cerebral processes underlying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59(Serial no. 240), 152-166.
- Fox, N. A., Calkins, S. D., & Bell, M. A.(1994). Neural plasticity and development in the first two years: Evidence from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domains of researc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677-696.
- Kagan, J.(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68-674.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67-171
- Kagan, J., Reznick, J. S., Clarke C., Snidman, N., & Garcia-Coll, C.(1984).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5, 2212-2225.
- Kagan, J., Snidman, N., & Arcus, D.(1993). On the temperamental categories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pp.19-30). Hillsdale, NJ : Erlbaum.
- Kerr, M., Lambert, W. W., Stattin, H., & Klackenberg-Larsson, I.(1994). Stability of inhibition in a Swedish longitudinal sample. *Child Development*, 65, 138-146.
- Kochanska, G.(1997). Multiple pathways to conscience for children with different temperament: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28-240.
- Kochanska, G.(1991). Patterns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in children of normal and affectively ill mothers. *Child Development*, 62, 250-263.
- Matheny, A. P. Jr.(1986). Stability and change of infant temperament: Contributions from the infant, mother, and family environment. In G. Kohnstamm(Ed.). *Temperament discussed*(pp. 49-58). Berwyn, PA: Swets North America.
- Mills, R. S. L. & Rubin, K. H.(1993). Socialization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withdrawal.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pp.265-290). Hillsdale, NJ: Erlbaum.
- Mullen, M., Snidman, N., & Kagan, J.(1993). Free-play behavior in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6, 383-389.
- Park, S. Y., Belsky, J., Putnam, S., & Cmic, K.(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 Rothbart, M. K.(1988).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pproach. *Child Development*, 59, 1241-1250.
- Rubin, K. H.(1993).The Waterloo Longitudinal project: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withdrawal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pp.291-314). Hillsdale, NJ: Erlbaum.
- Rubin, K. H., LeMare, L., & Lollis, S.(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to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217-249).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in, K. H., & Asendorph, J.(1993).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 Conceptual and definition issu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pp.3-18). Hillsdale, NJ : Erlbaum.
- Rubin, K., Stewart, S. L., & Chen, X.(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pp. 255-281). Hillsdale, NJ: Erlbaum.
- Smith, P. B., & Pederson, D. R.(1988). Maternal sensitivity and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097-1101.
- Wachs, T. D., & Gandour, M. J.(1983). Temperament, environment and six-month cognitive-intellectual development: A test of the organismic specificity

hypo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6, 135-152.
Washington, J., Minde, K., & Goldberg, S.(1986).

Temperament in preterm infants:Style and stab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 493-502.